

2014 신년사  
갑오개혁과 불교개혁

푸른 말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갑오년'이다. 신년 벽두에 새삼 '갑오년'을 떠올리는 것은 이해가 '개혁'과 '혁신'이라는 상징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갑자 전인 1894년 갑오년은 의외와 열강의 침탈로 인해 바람 앞의 등불 같았던 조선의 위급을 극복하고자 개혁과 혁신의 기치를 올린 해이다. 그로부터 두 갑자를 뒀던 갑오년은 1994년의 조계종 불교개혁회의 출범 20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당시 조계종 서의현 총무원장의 3선 연임 반대로 촉발된 조계종 개혁회의는 이후 불교혁신의 시급성이 되었다. 종편을 개정하고 종조를 도의, 중천조를 지늘, 중흥조를 태고선사로 통합하였던 1994년의 미진했던 개혁은 다시 1997년과 1998년 두 해에 걸쳐 거듭 혁신을 꾀하면서 일정한 제도개혁과 체제혁신을 이룩하였다.

시대를 변화시킨 갑오경장

1894년 7월부터 1895년 2월까지 이루어진 갑오개혁 즉 갑오경장은 청일전쟁과 청·러·일 삼국의 간섭, 1895년 10월의 명성왕후의 시해로 이어졌다. 갑오경장의 가장 큰 특징은 개혁 이래 쌓여온 각종 모순과 백성들의 개혁 요구에 대한 정부의 자주적 개혁 추구에 있다. 갑오개혁은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일본과 러시아가 각축하는 사이에 김홍집, 어윤중, 유길준 등을 중심으로 한 친일 내각이 3차례에 걸쳐 시행한 일본 지향의 개혁이다. 먼저 개혁의 주체를 1차 개혁을 통해 대한군의 섭정 아래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김홍집 등의 친일내각을 탄생시켰다. 이때 연호의 사용과 개국기원 설치, 아문 설치, 과거제 폐지가 이뤄졌다. 그리고 반상 신분제도 폐지, 재정 일원화(탁리아문 관장), 은본 위제, 조세급납화, 도량형 정비도 도모하였다.

2차 개혁에서는 고종이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아가 흉범 14조로 표현되는 독립 선고문을 바치고 반포하였다. 8아문을 7부로 조정하여 지방관 8도제를 23부의 소지여주의 체제를 정착시켜 행정관만 행사하게 함으로써 지방관의 사법권을 독립시켰다. 3차 개혁은 을미사변 이후 친일 내각이 추진한 을미 개혁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갑오개혁은 정치 연호를 사용하고, 왕실과 정부의 분리를 도모했다.

도성출입 가능, 500년만의 변화

일본 일련종 승려 사노 젠레이(佐野前勵)의 건백서에 의해 조선승려들은 합법적으로 한양 도성출입을 경험했다. 조선 승려의 도성출입제한의 폐지(1895)는

조선승려들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자극하였다.

그동안 승려들은 신분제의 공고한 틀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평등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도성출입 허용과 신분제의 폐지는 불교계의 오랜 숙원을 일거해 해소시켜 주었다.

반면 경허 성우(1846~1912)는 이러한 일련의 변화가 나라의 주권을 빼앗아 가는 전단계임을 알지 못하고 거저 천왕에 대한 만수무강 법회를 열고 환호하는 당시 승려들의 몰주체성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하여 그는 "나에게 원이 하나 있다면 다시는 내 발이 경성 땅을 밟지 않는 것"이라고 사자후를 토하였다.

경허의 사자후에도 불구하고 대한 승려들의 한양 입성은 불교계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당시 승려들은 일본불교의 눈부신 포교전략과 교리정비에 커다란 자극을 받았다. 이미 이동인과 탁정식 등에 의해 선진화된 일본불교의 동향을 접하고 있었던 승려들은 일본불교의 조선불교 진출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깊이 숙고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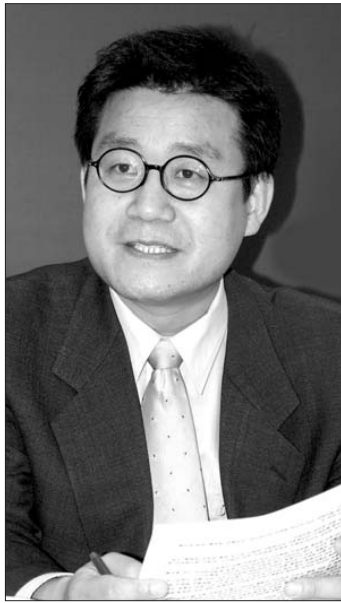
조선 정부는 사노 젠레이(佐野前勵)의 건백서에 의해서 승려들의 도성출입을 허용한 뒤 '동대문 밖 영미정(頌興亭)에 소흥사(紹興寺)를 창설하고 13도 사찰을 통합'하게 하였다. 이후 소흥사를 원흥사(元興寺)로 고치고(1902) 이 절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사사관리서(寺社管理署, 1902~1904)를 폐지되었다. 1906년 일본 정토종의 후원을 받던 불교연구회의 이보담(봉원사 주지)과 홍월초(회계사 주지)는 원흥사내 근대적 교육기관이자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명진학교 건립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대한불교계는 1908년에 원종을 창종했다. 하지만 이회광 종정이 일본 조동종을 방만한 뒤 연한제명을 하여 원종을 일본 조동종 산하에 둔 사실이 밝혀지면서 명고축출(鳴鼓逐出)을 당하였다. 이어 1910년에 부산 범어사를 거점으로 하여 입제종이 창종되었다. 하지만 일본은 1910년에 한일병탄을 통해 국권을 침탈하였고, 1911년에는 사찰령을 반포하여 조선반도 내의 모든 사찰 재산권과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불교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바라본 대한불교의 지식인들은 조선(대한)불교의 개혁과 혁신의 이론을 제기하였다. 이들의 안목에서 보면 당시 대한불교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종래의 전통을 견지하면서도 개혁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불교로 태어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교단의 지도자들은 불교 교단의 혁신을 위한 담론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변화하는 불교를 위한 10가지 제언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 1894년 시행된 갑오경장 반상제 폐지 등 변화 시작 근대를 알리는 신호탄

한국불교도 근대물결 속 변화도모... 교단혁신 현대도 개혁 필요할 때

갑오개혁에서 제시된 신분제의 폐지와 이후 전개된 도성출입 허용은 조선승려들의 주체성과 능동성 회복의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일본불교의 앞선 포교전략을 접하였던 불교 지식인들은 다양한 불교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지난 100여 년 전 일본불교에 자극받아 제기했던 혁신의 담론들은 지금도 크게 개선되지 못한 채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현재 한국불교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그리고 개선해야 할 가장 급선무는 무엇일까? 이들 질문에 대한 대답에는 대내적인 측면과 대외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다. 대내적인 측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급선무가 될 것이다.

**첫째,** 교단 내 비구와 비구니의 권리를 상호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중

회의원의 숫자와 비율 및 소임과 역할 등에서 비구와 비구니의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 출가 승려와 재가 신도가 교단 안팎에서 상호 역할을 통하여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사부대중의 교단답게 출가 승려에 상응하여 재가 신도의 교단 운영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셋째,** 엄격한 계율 수지와 청정한 수행 건지를 통해 지나친 세속화를 지양해야 한다. 출가자와 재가자는 적절한 차량 운행, 검소한 주거 환경, 절도있는 문화생활 등을 유지해야 한다.

**넷째,** 투명한 재정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종단의 혜택을 받는 승려는 모든 소유물에 대해 공적 소유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 소임에 대한 보시는 일정액의 월급제 형식으로 정착해야 한다.

**다섯째,** 교단의 대표자(총무원장, 본사주지 등) 선출에서 1승려 1투표 방식의 직접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통적인 산중 공의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선거방식의 건지가 요청된다.

이어서 대외적인 측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가와 교단의 관계를 대등하게 견지해야 한다. 국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정교 분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교단의 독립성이 지켜져야 한다.

**둘째,** 교단의 분파를 최소화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분종과 탈종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개선하여 사상적 이념적 차이에 따라 통합을 유도했으면 한다.

**셋째,** 교육기관과 연구소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대학교의 경영과 연구소의 운영을 통해 교육이 보다 전문화되고 연구가 좀더 체계화되어야 한다.

**넷째,** 교리와 의식이 과감하게 한글화되어야 한다. 기본 의식 문헌에서부터 전문 교리에 이르기까지 한글화를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불교의 대사회적 위상의 제고와 승려들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켜야 한다. 계율 엄수와 불교의 대사회적 존재감 확장을 위해 자기 정화 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산입화와 민주화 및 정보화를 거쳐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 불교가 이러한 몇몇 가지 급선무를 개선해 나간다면 선진불교로서 탄실하게 자리매김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조계종 개혁회의 출범(1994) 20주년이 되는 갑오년 신년 원단에 120년 전의 갑오개혁의 의미와 20년 전의 불교개혁을 대비하여 현대 한국불교계가 나아갈 할 방향을 짚어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社說

역동의 해 갑오년, 새 역사를 쓰자

2014년은 갑오년(甲午年), 말띠 새해가 밝았다. 갑자(甲子)년에서 시작하는 60간지(干支)로는 31번째에 해당한다. 60간지의 절반이 지나고 다시 남은 절반을 디디는 첫 해라고 해서 역학계에선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말의 상징은 무엇보다 박력과 생동감이다. 예로부터 소를 탄다는 것은 세사나 권력에 민감하게 굴지 않는 것을 의미했지만 말을 탄다는 것은 권력과 권위의 아이러니로 비쳐졌다.

청마는 특히 드높은 기상을 가진 활력이 넘치는 동물로 꼽힌다. 그래서 갑오년이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들이 많다. 갑오의 강한 에너지가 개인 활동과 국가의 명운에도 큰 변화를 줄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국사에서 갑오년은 에너지가 분출하는 한 해였다. 120년 전인 1894년 봄엔 갑오농민전쟁이 발발했고 여름엔 김홍집

내각이 갑오개혁을 단행했다. 신분제를 폐지하고 노비 매매를 금지했으며 공식적으로 양반과 평민을 구분하는 반상제를 폐지하는 등 조선 최대의 개혁이 바로 이 해에 있었다. 같은 해 8월에는 동아시아 전체를 전란으로 이끌었던 청일전쟁이 일어났다.

한국불교에도 올해는 좀 더 의미가 깊다. 1994년 종단 개혁이 2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이다. 94년 개혁을 통해 조계종은 현재와 같은 체재를 구축했고 지금도 그 정신은 면밀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도져했던 개혁정신이 퇴색했다는 지적이 많다. 범계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고, 선거로 불거지는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다.

역동성을 상징하는 말(馬)의 해, 어느 시기보다 변화가 높았던 갑오년 초입에 향후 백년을 위한 한국불교의 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 그 변화의 주체는 한국불교의 주인인 사부대중이다.

사찰 공정무역 앞장서 공생도모 하자

공정무역의 국제기구인 1989년 결성된 국제대안무역연맹(IFAT)이 시발점이었다. 이후 2008년 세계공정무역기구(WFTO)로 이름을 바꿨으며 현재 생산자조합, 수출입 회사, 소매상, 지원 단체 등 70개국 약 300여 단체가 가입해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3년 아름다운 가게가 공정무역의 시작이다.

공정무역이란 제 3세계국가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아름다운 거래행위다. 무역에 '공정(fair)'이란 단어가 붙어 친환경 직거래 개념이 생겨났다.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이윤을 최소화하면서 최대 이윤을 자본가가 획득하는 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게 공정무역이다. 런던을 포함해 전세계 1300개 공정무역 도시들은 도시 차원의 공정무역 운동으로 국제적 빈곤, 불평등 극복을 위한 시민 인식 확산에 힘써왔다. 이는 종교기관들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점에서 구랍 22일 열린 조계사와 서울시, 한

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등의 공정무역사찰 협약식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번 협약으로 조계사가 앞으로 공정무역 캠페인과 더불어 공정무역 제품 사용을 포함한 윤리적 운동에 동참할 방침이다.

그 동안 한국불교계에서는 미약하나마 생산자와 소비자 간 공정한 거래로 공생을 도모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상을 따지고 보면 거의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계사가 공정무역 대열에 합류하게 되면 불교계의 윤리적 소비를 통한 국내외의 공생 운동에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미 조계사는 매년 가을 합평 국화재배능가로부터 구입한 국화로 '시월국화는 시월에 핀다'며 축제를 열고 직거래를 해왔다.

앞으로도 조계사를 기점으로 불평등한 유통 구조에서 피해를 입는 국내외 이웃들을 우리 불교계가 외면해선 안된다. 대중적으로 다가가는 나눔을 더 확산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공평도교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인사총연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사 : (054)634-3429 부산지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공 고  
대한불교원효종

중도 여러분께 고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제2대 중앙총회 (2008통합이후)에서 총회회장 태일스님, 부의장 자은스님, 부의장 보광스님을 선출하였으며, 총회회장 태일 스님의 사회로 총무원장 선출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총무원장으로 본인(우석)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전 총무원장 향운스님의 깨끗한 승복으로 총회가 잘 진행 되었음을 중도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종단의 업무를 11월 28일 당선된 이후 제가 (우석)보고 있음을 중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서로 화합하고 합심하여, 종단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효보살의 화쟁사상에 의하여 지금까지(2008년 통합 이후) 이루어진 모든 징계에 대하여 전부 사면을 합니다.

중도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은 잊어주시고 앞으로 우리 종단의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모두 다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단의 일을 가지고 사회법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중도는 우리 종단을 분열하고 와해 하고자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제명 처분을 하겠습니다. 모든 중도 여러분은 종단에 일어난 일은 종단 안에서 해결해 주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부디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종단이 되도록 모두 다 노력합시다. 새로운 총무원장은 경주시 서라벌대로 322-10 에 주소를 두고 현판식을 1월 10일 10시에 중도 여러분을 모시고 조출하게 하고자 합니다,

부디 많이 참석하시여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7(2013)년 12월 19일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우석 (손영채)